

올림과 잠김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발행: 천주교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 발행인: 오승수 시몬 신부 | 편집: 본당 편집회
홈페이지: <https://standrewkimdetroit.org/detroit/bbs/monthly-meeting/>

연중 제28주일 (2024년 10월 13일)

“가진 것을 팔고 나를 따라라.” (마르 10,17-30)



그리스도의 지옥 정복도- 관 속에 있던 아담과 이브를 이끌어내고 계신 예수
The Chora Church/ Kariye Museum, Istanbul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마르 10, 27)



1. 시작 성가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가톨릭 성가 19번 '주를 따르리'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 SCAN ME

19

주를 따르리

연중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Moderato

p



1. 주 예 수우-리의 희 망우 리 의행 복
2. 주 예 수우-리의 기쁨우 리 의평 화

mf



내 일생다하 여 주 님 을 사랑하- 리
내 일생다하 여 주 님 을 사랑하- 리

p



생 명 의 길 밝 혀 주 시 니 주
우 리 들 의 목 자 이 시 니 주

mf



님 을 따-르- 리 십 자 가 길-로 주
님 을 따-르- 리 인 내 의 길-로 주

p



님 을 현양하- 리 사 랑 의 길 로
님 을 현양하- 리 겸 손 의 길 로

2. 인사 나누기 및 출석 확인

- 참석한 반원들과 초대 손님이 있으면 인사를 나누고 반원들의 근황과 소식을 나눕니다.

3. 기도 지향 나누기

- 오늘 반모임에서 개인이나 공동체에 필요한 기도 지향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4. 성경을 읽기 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성령의 힘으로 제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느끼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새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5. 하느님 말씀

- 어느 분이 (혹은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다음의 성경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가진것을 팔고 나를 따라라

(마르 10,17-30)

그때에 17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18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19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20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21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22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23 예수님께서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으로 어렵다!” 24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으로 어렵다! 25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26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27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28 그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29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30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백 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 각자 마음에 와닿는 말씀 (최소 한 단어 / 최대 한 문장) 뽑는 시간을 1분간 가지겠습니다.
- 10분 동안 각자 선정한 말씀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6. 성경을 읽은 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말씀 안에서 새긴 당신의 사랑을 제 삶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당신을 믿고 당신께 기도하고 당신을 선포하며, 성령이 주는 평화 속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7. 말씀과 생활 나누기

- 그 말씀을 왜 선택했는지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각자에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짧게라도 되도록 기도한 모든 이가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달 반모임 말씀과 생활 나눔

-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아라. 예지의 길을 걸어라.” (잠언 9,6) 말씀으로 기도하며, 일상생활에서 선택하는 일들이 지혜로운 길인지,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되고, 어떤 지혜와 예지의 삶을 살아야 할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한평생 평화롭게 살기를 소망해 봅니다. [NV1]
-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요한 6,51)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루하루 하느님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NV1]
-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요한 6,56)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를 비워야 예수님께서 머무를 자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영적인 채움을 위해 성전에 머무르고 나의 유한함을 깨달아 가며 점점 더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려야겠습니다. [NV1]
- 오랫동안 우리 본당의 한식구이셨던 **최명자 발바라 자매님**께서 타주로 전출하셨습니다. 발바라 자매님의 빠른 적응과 건강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NV2]
-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요한 6,54) 말씀으로 기도하며, 부활과 영생의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으로서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모든 것인 양 생각하고 행동해 온 제 자신을 반성합니다. [NV2]
-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요한 6,56) 말씀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면서 하느님이 내 마음 안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나의 의지만으로 힘들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느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NV2]
-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요한 6,57) 말씀으로 기도하며,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현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확신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NV2]
- 저희 Novi 3반은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아라.” (잠언 9,6) 말씀을 한 달 동안 살아갈 생명의 말씀으로 청합니다. 내 감정에 치우쳐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일상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체성사의 중요함을 되새기며 살아가겠습니다. [NV3]

-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요한 6,54) 말씀으로 기도하며, 새로운 시작을 위해 남은 여생을 열심히 달려가 보아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RC2]
-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요한 6,58) 빵을 먹는다는 자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결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RC2]

8. 건의 및 기타 토의

- 우리 반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 토의할 사항에 대해 나눕니다.
- 참석 반원의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득표를 받은 사항을 본당에 건의합니다.

9. 공지 사항

- 본당 공지 사항과 구역, 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0.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와 날짜를 정합니다.

11. 마침 기도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모두 다 함께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향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반 모임에 참석한 모든 가정을 위하여 ‘가정을 위한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가정생활의 자람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아멘.



12. 마침 성가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생활 성가 셀라책 163번 ‘때로는 너의 앞에’ 1절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163

(축복송)

1베드 2,9

송정미



1. 때 - 로 는 너 의 앞 에 어 려 움 과 아 픔 있 지 만 믿 음 속
 2. 너 는 택 함 받 은 사 람 왕 같 은 - 제 사 장 이 며 거 룩 한



에 - 주 를 바 라 보 는 너 의 영 혼 - 너 의 영
 나 라 하 느 님 의 소 유 - 된 백 성 - 너 의 영



혼 우 리 볼 때 얼 마 나 아 름 다 운 - 지
 혼 우 리 볼 때 얼 마 나 사 랑 스 러 운 지



너 의 영 혼 통 해 큰 영 광 받 으 실



하 느 님 을 찬 양 오 알 - 렬 루 야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본당의 날 반모임 후기

야외 미사 준비하며 교우분들과 소통하고 협력하고, 야외 미사를 통해 하느님의 공동체를 체험하며 식사와 이벤트를 통해 웃음과 행복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전체 기획으로 고생하신 총 구역회와 추운 날씨였지만 마음 따뜻해졌던 미사를 집전해 주신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Troy 2 홍영지 막달레나



새벽녘에 걱정했던 날씨는 우리 편이었습니다. “오! 그래! 그래요!” 신부님의 뜻깊은 강론 말씀을 되새기며 ‘사고 없는 오늘 하루를...’이라며 청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믿음 반에 속해서 풍요롭고 다채로운 음식도 맛보았고, 뒤풀이로 운동회 시작, 해맑고 즐겁게 노는 아이들, 어른들의 피구 등 다채로운 게임과 재치 있는 사회자 덕분에 흥겨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예년에 비해 원로분들의 참여 저조로 근심과 섭섭함도 있었지만 수고하신 신부님과 사목 위원 이하 반장님들, 그리고 반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는가!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게 아니겠는가!

Canton 반

본당의 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본당 교우분들과 함께 친교를 나누고 노바이 반원분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고 행복한 마음으로 게임 놀이를 하면서 하루가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내년 본당의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Novi 1 고명분 크리스티나





2024 8월 성경 통독 모임 민수기 말씀과 함께

구약성경의 네 번째 책인 민수기(The Book of Numbers)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40년 동안 인적 없고, 개척되지 않은 넓은 들판의 의미인 ‘광야에서의 생활을 기록한 책입니다. 또한, 시나이 광야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민수기에서는 무질서했던 예전의 생활에서 모압에 들어가기까지의 하느님의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길을 만들고 이정표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지 않고 목적지까지 잘 찾아가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의 상세하고 구체적인 계명과 법규들을 만드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느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법을 자세히 알려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느님과의 약속을 온전히 준수하며 신뢰하면서 지내온 것만은 아닌 듯합니다. 광야 40년의 삶은 그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고, 그곳을 헤매면서 끊임없는 시행착오와 불평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평불만으로 인해 그들이 치르는 대가에서는 믿음과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십니다.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우왕좌왕하며 갈등하는 상황이 심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 척박한 광야 생활에서 식량, 물조차 부족한 환경이었다면 보이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오로지 믿고 순종하기란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자세히 방향을 제시해 주시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못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또한 실수하고, 넘어짐을 반복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인내가 참 어렵습니다. 기도하면 ‘금 나와라 딱딱’하고 바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도 이렇게 어리석고 믿음 부족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글 | 고정민 엘리사벳

야곱의 자손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크고 작은 여러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고, 물도 귀했습니다. 광야 특유의 기후와 물 부족은 여러 질병을 가져왔고,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왕좌왕, 임시방편으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모세에게 쏠린 힘은 시기와 질투로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모세와 하느님께 불평을 합니다. 불평을 넘어 원망과 함께 과거의 노예살이 시절을 그리워하기까지 합니다. 모세조차도 하느님께 “저에게 짐으로 지우십니까? 저 혼자서는 이 온 백성을 안고 갈 수 없습니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저 혼자서는’에 마음이 멈춥니다.

제게도 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하느님을 알기 전에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을 통해서 해결하려 하였고, 거기에 하느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을 알고 난 후에는 작은 일에도 하느님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떠올리게 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며 지냅니다. 해결하려고 굳이 안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더 편안합니다. ‘저 혼자서는’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믿음이 간절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느님께서 내 개인적인 일을 해결해 주시겠지’하는 헛된 믿음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해 꿰뚫은 하느님의 선한 의지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 글 | 박영선 테레사

저는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처절했던 삶이 느껴졌습니다. 배고파서 불평하다가 죽고, 다시 하느님께 의탁하여 길을 떠나다가 마음이 조급해져 불평하자 불뱀에게 물려 죽고, 이방신을 경배하도록 속인 미디아인들과는 끝내 전쟁을 치르면서 점점 더 조직화되고 강해지는 공동체의 모습을 봅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신뢰하지 않고 불평불만으로 반항하는 백성을 죽이기도 하시지만, 이러한 백성들을 이방 예언자를 통해서 한결같이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역경과 고난, 삶과 죽음 모두 주님께서 주관하시기에 이 모든 삶의 여정 안에서 함께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진실한 마음만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제 마음은 오롯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 글 | 윤선호 소화데레사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은 온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호르 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아자르에게 입혔다. 아론이 그곳 산꼭대기에서 죽자, 모세와 엘아자르는 산을 내려왔다. 그래서 아론이 숨진 것을 온 공동체가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온 집안은 아론의 죽음을 슬퍼하며 삼십 일 동안 곡을 하였다.” (민수 20, 27-29)

그 때의 시대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아론은 분명히 이스라엘 공동체를 헌신적으로 이끌었음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가 죽자 온 공동체가 슬퍼하며 30일 동안이나 통곡을 하였으니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정승의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지만 정승이 죽으면 문상도 안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살아 있을 때 권력을 이용해 백성을 핍박하고 못살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론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하느님 말씀을 잘 전달하고 잘 이끌어 온 공동체가 그를 믿고 따랐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덕과 불평에 시달렸음은 성경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권력을 가진 공직자들이 개인과 집단의 욕망을 위해 선량한 시민을 농락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을 보면 그들의 앞날이 뻔히 보입니다. 욕망을 가진 개인과 집단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우리는 지금 이 현실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론이나 모세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글 | 유기돈 유스티노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 세대가 바뀌면서 단련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이끄심 속에 버티어 왔습니다. 죽음과 삶의 공존에서 불평과 불만 속에서도 항상 그들의 소리를 듣고 대변해 주는 한결같은 모세의 모습에서 참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불평과 불만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너와 내가’ 함께 했기에 그 힘든 여정을 견뎠으리라 생각합니다.

미국에서의 이민자, 이방인의 처지가 쉽지 않지만 우리 공동체가 있어 힘이 되고, 한 분이신 하느님을 같이 고백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우리’가 있음이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 글 | 최승원 엘리사벳

2024 성경 잔치

올 한 해 본당 공동체에서 통독하고 공부한
'모세오경 말씀과 함께' 하는 성경 잔치에 초대합니다.

- ◆ 주제 : 모세오경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 ◆ 일시 : 11월 16일(토), 오전 10시 ~ 오후 4시 (점심 도시락 제공)
- ◆ 장소 : 대성전, 마리아홀, 교실

- ◆ 내용 : 개인별 묵상글쓰기와 OX 퀴즈 및 빈칸 넣기, 팀별 나눔 및 찬양의 시간, 단체 게임
- ◆ 상품 : 총 상금 \$1,000
 - 개인 1등(1명), 2등(2명), 3등(3명) 시상
 - 단체 1등, 2등, 3등 시상
 - 참가상

- ◆ 참가 신청 : 성전 로비 테이블 위 신청서에 11월 10일(일)까지 Sign Up 바랍니다.
- ◆ 참가비 : \$20
- ◆ 준비물 : 천주교 새번역 성경책, 개인컵/텀블러